

가을 배추·무 재배면적 4년 만에 최저...김장 물가 '비상'

올 배추 재배면적 1만3152ha... 지난해보다 5.7% 802ha 감소 배추값 전년보다 40% 넘게 상승...김장철 앞두고 채소값 불안

올해 가을배추와 무 재배면적이 4년 만에 최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면서 이로 인해 출하량이 감소,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배추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40% 상당 비싸다는 점에서 당장 김장철을 앞두고 채소값에 비상이 걸렸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을배추·가을무 재배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1만3152ha로 작년보다 5.7% (802ha) 감소했다.

올해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2019년(1만968ha) 이후 4년 만에 가장 적은 것이기도 하다.

통계청은 올해 가을배추 심는 시기(정식기)에 배추 가격이 하락하는 등의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농산물 유통 정보에 따르면 정식이었던 올해 7~9월, 배추 1kg당 도매가격은 평균 1501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2298원)보다 34.7% 하락했다.

무 재배면적도 비슷한 이유로 감소했다.

파종기에 무 가격이 하락하면서 올해 가을무 재배면적은 6026ha로 작년보다 5.0% (314ha) 감소했다.

지난 7~9월 무 1kg당 도매가격은 평균 969원으로 작년 동기(1311원)보다 26.1% 내렸다.

여기에 파종기인 7월 비가 많이 내린 기상 조건도 무 재배면적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가을배추와 가을무의 재배면적 감소는 김장에 쓰일 배추와 무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도별로 보면 가을배추는 전남(3100ha), 충북(2213ha), 경북(2144ha), 강원(1천687ha) 순으로 면적이 넓었다.

가을무는 전북(1289ha), 충남(1031ha), 전남(831ha), 경기(822ha) 순으로 넓었다.

배추와 무 재배면적이 감소하면서 김장철을 앞두고 가격 급등 전망이 나온다. 물론 면적 단위당

생산량, 수입의 추이 등에 따라 최종 소매 가격은 달라지게 된다. 하지만 최근 배추가격이 비싼 탓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상쇄되지 않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발표한 '농수산물 가격정보 2316호'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광주 양동시장의 배추 1포기 가격은 6520원으로 전년(4600원) 같은 기간에 견줘 41.7% 비쌌다.

김장에 쓰이는 대파와 붉은 고추도 비싼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대파와 붉은 고추는 생육기 폭염과 폭우로 인한 작황 부진과 최근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국물과 찜 요리의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오르는 추세다.

같은 날 기준 대파 1kg은 2주 전 가격인 2500원보다 28.0%, 오른 3200원, 붉은 고추(100g)는 6.7% 상승한 800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다음 달 초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6일 '농산물 수급조정위원회'를 열어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에는 배추, 소금 등 주요 재료 공급 확대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해수담수화 시설 안정적 운영방안 찾는다

수자원공사 완도수도지사 워크숍

한국수자원공사 완도수도지사는 지난 26일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완도군과 해수담수화 시설 운영관리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 워크숍은 극심한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금일도와 넓도에 도입된 해수담수화 시설 3개소의 원활한 운영관리 역량을 확보하고자 실시

됐으며, 해수담수화 원리와 타 지자체 도입사례 등을 나누며 최적의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조창현 완도수도지사 지사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완도군 50년만의 극한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도서지역에 도입된 해수담수화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중단없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청년농업인 농지 지원 확대

농지은행사업 1730억원 투입 지원 면적 330ha로 50% 증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29일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으로 청년 농업인에게 330ha 농지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올해 농지은행사업에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1730억원을 투입했다.

이 가운데 농지은행 핵심사업인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전년동기 대비 113억원이 추가된 833억원을 집행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고령이나 질병으로 은퇴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입

해, 지역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농어촌공사 전남본부는 올해 270ha를 매입해 농지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공급했다.

특히 경영규모와 연령별로 농가의 성장 단계에 따라 지원하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을 통한 청년농업인 지원 면적은 전년(217ha) 대비 50% 증가한 330ha다.

전남본부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매입과 농지임대를 지원해 초기 창업과 영농 규모 확대를 지속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농어촌공사는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이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임대-후매도사업'을 시작했으며, 스마트팜 시설농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을 위해 비축농지에 시설을 완

비해 장기임대하는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사업'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지연금사업도 증가세를 보이며, 올해 270명이 신규 가입했다.

내년부터 은퇴 농업인이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매도하면 농지이자 은퇴저축금을 지원, 해당 농지를 청년농에게 우선 지원하는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오랜 기간 영농에 사용된 우량 농지를 청년농이 이어받을 수 있어 청년농사 업 정착과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영호 전남본부장은 "지원을 확대해 청년농은 농촌에서 미래를 일구고 은퇴농은 농촌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내년 무상 우유바우처 지원 참여 학생 9만명

전국 30개 지역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 학생 등에게 우유를 살 수 있는 카드를 지원하는 '무상 우유바우처(현금카드) 시범사업' 시행 지역을 내년에 30개 시·군·구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범사업 시행 지역은 올해 15곳에서 내년에 두 배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내년에 9만명으로 올해 2만5000명의 3.6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은 편의점과 하나로

마트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한 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현금카드를 취약계층 학생 등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한 달에 1만5000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참가자의 재신청 의사가 96.9%에 달하는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돼 내년에 사업 시행 지역을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신청을 받아 다음 달 중 시범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국산 종자에 'K-씨드' 표시 국립종자원 상표 개발

국립종자원은 국산 종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외국 종자와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K-씨드(K-seed) 상표를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이 상표를 우리나라와 주요 수출국인 미국, 인도, 중국에 각각 출원했다.

K-씨드는 우리나라에서는 심사를 거쳐 올해 말에, 해외에서는 내년 8월까지 각각 등록될 것으로 보인다.

종자 수출기업과 학계, 기관, 연구원 등은 국립종자원에 사용 신청을 한 뒤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소프라이즈' 즐겨볼까 29일 오후 광주시 서구 이마트 광주점 한우 판매대가 '한우데이'를 맞아 저렴한 가격에 한우를 구매하려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이마트는 다음달 1일까지 한우 전 품목을 40% 할인 판매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11월 1일은 '한우먹는 날'...농협 하나로마트 반값 할인

농협은 다음 달 1일까지 나흘간 전국 하나로마트 470여곳에서 '한우의 날' 맞아 한우 할인 판매 행사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농협은 한우의 날(11월 1일)을 맞아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한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등심,

안심, 채끝 등 구이류와 불고기, 국거리 고기를 최대 50% 할인해 판매한다.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7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